

《똑똑한 쥐 VS 멍청한 인간》

생명 윤리의 다원적 근거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철학 동화’라는 부제가 붙은 라이너 에를링어의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말미에는 주인공의 외삼촌 고트프리트와 도덕적 선악의 판단 문제로 고민하는 조카 페르디난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간다. “사람들이 너한테 정답이라 내미는 것을 그냥 믿어버려서는 안돼. 언제나 네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네 생각을 다듬어야 해. 그리고 네 믿음,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 네가 취하는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그런 게 바로 자유야.”

글_박이문

맞는 말이다. 생물학적 생존도 힘 드는데 인간으로서, 즉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체 도덕이 무엇이며, 도덕적 판단의 정확한 잣대는 무엇인가? 팔십의 나이에 가까워 왔고, 반세기 이상 이 문제로 항상 시달려 오면서 윤리학을 배우고 가르치고 책을 써냈지만, 나는 아직도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확신하건대 지금까지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을 낸 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생명공학 발달이 가져온 생명윤리의 문제들

우리가 도덕적 잣대로 삼아 온 전통과 관습은 시대와 장소, 문화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며,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고대로부터 다양한 종교와 철학자들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잣대를 주장해 왔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근대에 와서 이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윤리적 원칙으로 벤담과 칸트가 각각 공리주의와 의무주의 윤리학을 정립했지만, 그 어느 것도 모든 구체적 상황에서 생기는 도덕적 혼란을 풀어주지는 못한다.

이런 문제의 ‘힘듦’과 ‘골치 아픔’은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 여파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 생명공학으로 제기되는 생소한 도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개인이나 사회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옳고 그름의 윤리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악의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행동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점이다.

따라서 카플란의 《똑똑한 쥐 VS 멍청한 인간》을 접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앞서의 동화를 철학적 거대담론이 답하지 못하는 도덕일반 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로 삼을 수 있다면, 이 책은 생명공학 발달로 생긴 특정한 생명윤리학 문제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안락사, 낙태, 시험관 수정, 인공출산 기술, 장기이식, 신장투석, 튜브음식공급, 인공호흡기 사용, 인공영양 공급, 수정란 입양, 동물기반 인체이식 수술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복제와 게놈 해독 이후의 맞춤형 인간 생산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뉴스위크>는 게놈 해독 프로젝트 총지휘자 크레그 벤터의 ‘2010년 내에 생명 제작 예측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과학자, 정치가, 의사, 환자, 환자의 가족, 간호사, 병원 경영자, 기업가 등의 허다한 문제는 도덕적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한 문제들은 인간 존엄성, 생명 신성성, 생존과 죽음, 인간 제품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 윤리란 바로 위와 같은 사항들이 제기하는 옳고 그름, 선악, 인간다움과 비인간다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카플란은 이 책에서 인간 복제, 인체 조작, 유전자 조작, 유전자 지도, 죽음 조작, 임신, 일상 생활, 실험 조작, 대중과 사회, 장기기증과 이식, 정치국가 의료시스템 등 총 12장으로 문제를 분류해 각각의 상황에서 특수하게 제기되는 ‘생명 윤

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법을 제안한다.

이 책 번역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생명윤리란 무엇인가>에는 이 책의 대표 번역자, 재미 한국 생물학자, 국내 법학자, 신부 등의 짙막한 글과 함께 저자 카플란의 글이 첨가되어 있다.

생명공학,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쓴 목적이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원, 정책 결정자 그리고 대중들이 현재 우리 세대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특히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책은 전문적인 생명공학 이론들의 소개나 생명윤리학에 관한 철학적 이론의 전개가 목적이 아닌, 생명윤리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한 이들을 계몽하는 데 있다.

생명윤리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명공학의 정체성에 관한 저자의 일관된 입장을 통해 우리가 생명과 관련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를 일러줌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카플란은 생명의 인위적 제작, 인간 복제, 게놈 해독, 장기 이식, 피임, 혼전 성경험 등을 다양한 가치의 이름(특정한 종교, 전통, 신념, 생명의 존엄성, 자연의 신성성 등)으로 비윤리적이라 규정하고 규탄하는 이들이 아직도 적지 않음을 한탄한다. 그러한 것들을 가능케 한 생명공학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무조건적 규탄, 부정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많은 종교인, 도덕군자, 일반인이 이런 태도를 고집할 때 첨단 생명공학에 의해서 이 책의 제목대로 ‘똑똑한 쥐

VS 멍청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멍청한 쥐는 유전자 조작으로 놀라운 지능을 갖게 되겠지만 지능 개발을 거부하는 인간은 쥐보다 훨씬 멍청한 동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생명공학에 대한 맹목적 거부가 오히려 반윤리적일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생명공학의 맹목적 수용의 도덕적 타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주장은 생명윤리를 논하기 전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에 대한 객관적 소양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그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학, 심리학,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관한 객관적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에 대한 진위 판단과는 달리 가치 판단은 복잡하고 어렵다. 여러 종류의 가치 판단 중 윤리적 가치 판단은 더욱 어렵고 복잡하며 윤리적 가치 판단 가운데서도 생명공학과 직접 관련된 윤리적 가치 판단은 더더욱 골치 아프고 힘들다.

이 책의 미덕은 생명윤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인식시킴으로써 생명윤리 문제를 일상생활의 고민으로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결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박이문님은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 《당신에게 철학이 있습니까?》 등의 철학서와 《나비의 꿈》 등의 시집이 있다.

